

1 월 산업활동동향 해석 : 'Step by Step'

2021/ 3/ 4

Economist

이동호

(2009-7062)

dhlee@leading.co.kr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1 차를 지나 3 차까지 유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경기 관련 지표들은 차근차근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2~3 페이지 차트 참조). 아직까지는 고강도 경기부양 정책에 의한 바가 크지만 향후 백신 효과 등에 의해 시장 자동조절 기능이 복원될 시기도 머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재고 소진이 잘 되고 있다. 재고 증가율(yoy)은 전년 3/4 분기말부터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 들었다. 재고가 소진되는 가운데 출하는 증가하면서 재고순환지표(출하증가율-재고증가율)는 그 회복세가 뚜렷하다. 수요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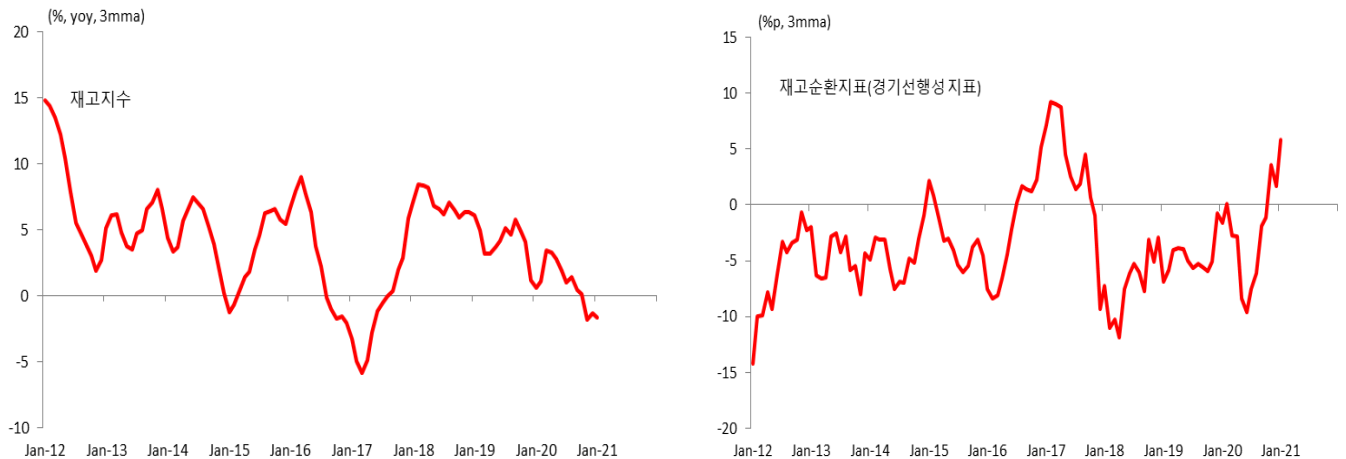
수요 회복은 수출 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소비는 아직 부진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소매판매)도 최근 바닥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신 접종자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내 소비 지표는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요 회복으로 인해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설비투자 회복을 시사한다. 평균 가동률이 1 월 들어 다소 주춤했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라는 점도 생산능력 대비 생산 비율의 오름세와 어우러져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니즈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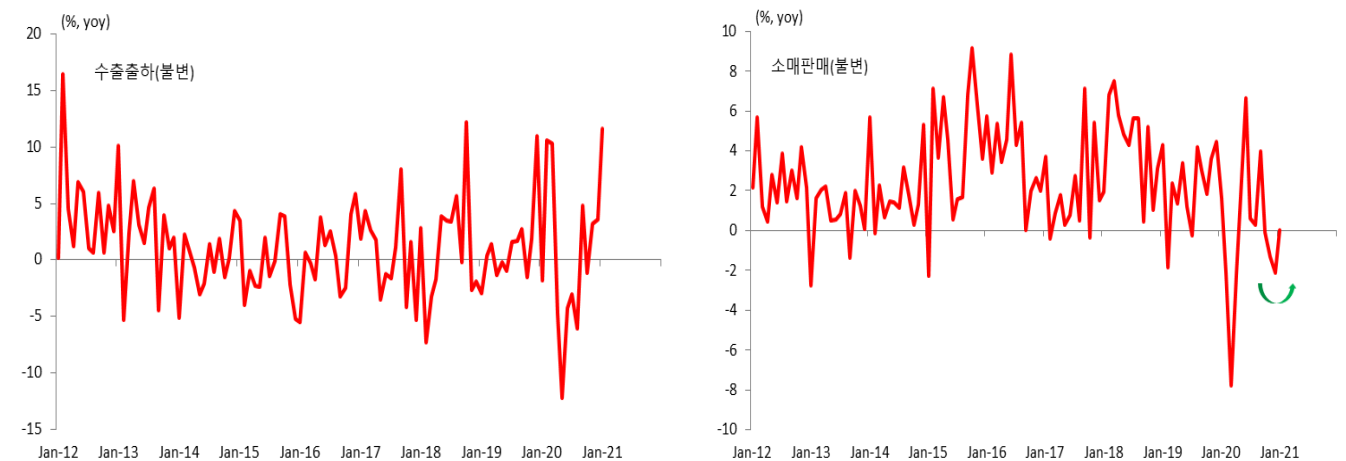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경기종합지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어 가고 있다. 바이러스 3 차 유행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 월에 다소 주춤했지만 향후 백신 효과 등으로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선행지수 구성 지표들중에서 금융성 지표인 KOSPI 에 의한 바가 아직은 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재고순환지표 등 실물성 구성 지표의 회복도 그 기여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경기 회복을 선반영한 바가 커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지표 회복은 아직 전반부를 지나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리 백신 접종 초기 상황이어서 잠재된 수요 회복의 여지가 여전히 크고, 주요국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스탠스 또한 연중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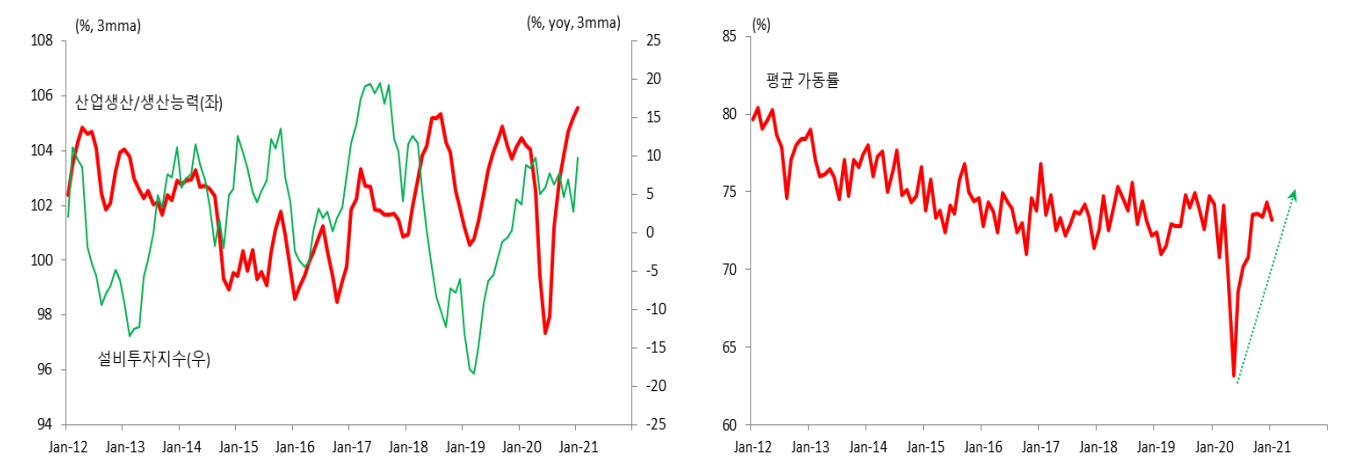
원활한 재고 소진과 재고순환지표 회복세 →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수요 회복은 주로 수출 쪽에서.. 부진했던 국내 소비 수요도 이제 바닥은 지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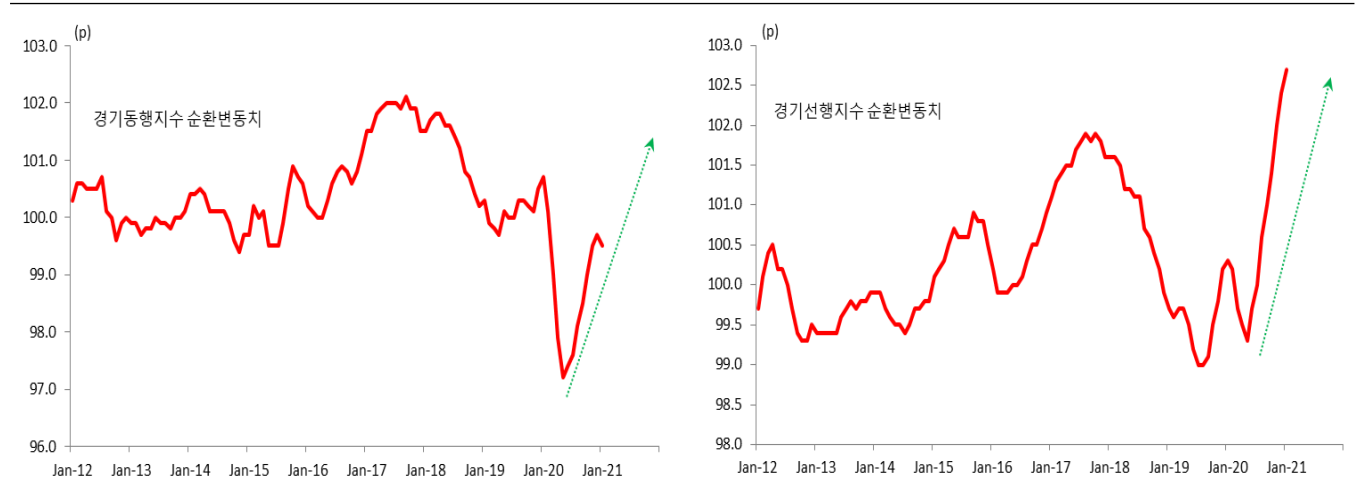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 비율 상승세 & 평균 가동률 오름세 → 설비투자 확대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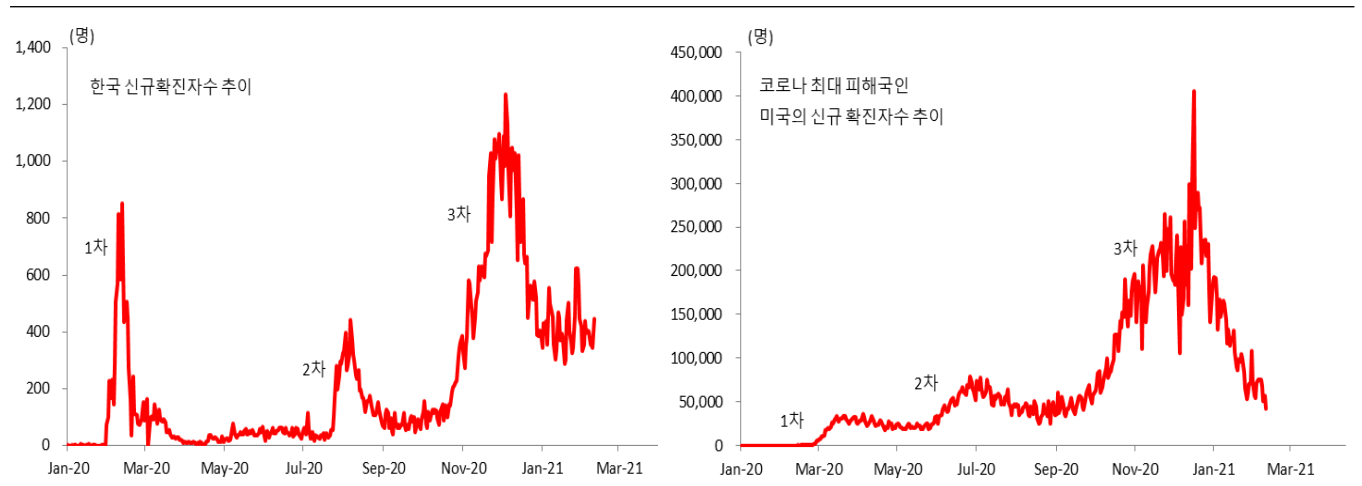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리딩투자증권

경기종합지수의 이상향 흐름



백신 효과 등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는 점차 줄어듦 전망



자료 : 통계청,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 2021 Leading Investment & Securities Co. All rights reserved